

#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

## (Gender Statistics Training Curriculum)

### 이렇게 활용하자



**박영실**  
국가통계연구원  
/사회학 박사  
youngshil@korea.kr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아시아·태평양통계연수소(UNSIAP)는 젠더통계 훈련 서브그룹(SGGST)의 가이드 아래 2020년에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2024년 12월에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젠더통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서브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커리큘럼 개발 및 개편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통계포커스 이번 호에서는 개편된 커리큘럼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다.

### Q1 젠더통계의 개념

**A1.** 젠더통계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황 차이와 불평등을 보여 주는 통계를 의미하며, 다음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성별로 세분화된 통계
- 특정 성별(여성 또는 남성)에 관한 데이터
- 특정 성별 문제를 반영하는 데이터, 이때 해당 문제가 반드시 성별, 성별 차이, 여성 또는 남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됨

즉, 젠더통계란 여성에 관한 데이터 혹은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넘어 여성과 남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젠더를 성인지로 번역하기도 하나, 최근 젠더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임에 따라 젠더통계라고 적시한다. 단, 성인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Q2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목적

**A2.** 이 커리큘럼은 젠더통계 교육 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이에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젠더통계의 생산, 활용, 분석과 관련된 주제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또한 강사가 학습과정을 안내하고, 각 모듈의 특정 학습 목표와 관련된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를 아니라 학습에만 관심 있는 사용자도 이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젠더통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커리큘럼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개발되었다.

- ① 젠더통계 훈련 과정의 설계 및 실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적 자원(one-stop resource)으로 사용
- ②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
- ③ 젠더통계 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 제공
- ④ 젠더통계 학습을 희망하는 개인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탐색하도록 지원



### Q3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 개발 과정

**A3.** 커리큘럼은 2018년 말에 설립된 젠더통계 훈련 서브그룹(Subgroup on Gender Statistics Training, SGGST)의 지침 아래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아시아·태평양통계연수소(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UNSIAP)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국가 통계청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브그룹은 아태지역 내 국가통계청, 교육기관, 대학, 개발 파트너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도 커리큘럼 개발 및 개편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커리큘럼은 진화하는 문서(living documents)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콘텐츠, 도구, 연습문제 및 교육 모듈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커리큘럼은 2020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종합검토를 한 차례 거친 뒤 2024년 12월에 개편되었다. 종합검토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고, 검토 과정에서 방법론적 진전사항, 새로운 젠더 이슈,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제1차 서브그룹 회의(2019년 1월 태국 방콕)



제8차 서브그룹 회의(2023년 11월 태국 방콕)



### Q4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핵심 특징

**A4.**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듈식 구조 및 순서(modular structure and sequencing): 이 커리큘럼은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교육목표 및 학습대상자에 따라 모듈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각 모듈의 내용은 일관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학습자가

기본 개념에서 고급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점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목표의 명확성(clarity of objective): 커리큘럼의 각 모듈은 도입부에 해당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강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지침이 되고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훈련 자원(training resources): 커리큘럼의 각 모듈은 젠더통계 훈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강의계획서, 연습문제, 프레젠테이션, 사전사후평가, 기타 자료 등이 있다.
- 일관성(consistency): 훈련은 학습대상 및 훈련환경과 무관하게 일관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이것은 모든 학습자가 표준화된 학습경험을 하도록 해 준다.
- 평가(assessment and evaluations): 이 커리큘럼은 교육의 효과성과 학습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학습 측정에 필요한 사전사후 검사 및 평가 도구도 제공한다.
- 적용가능성(adaptability): 이 커리큘럼은 다양한 상황(국가, 지역), 학습대상(데이터 사용자 또는 생산자), 기관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선택 사항을 손쉽게 지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 Q5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학습대상

**A5.** 이 커리큘럼은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생산자에는 국가통계청 및 공식통계 생산 담당기관, 데이터 사용자에는 정책결정자, 학계, 시민단체, 미디어, 일반 대중 등이 포함된다.

- 통계전문가: 젠더통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통계 영역에 통합하고자 하는 전문가
- 정책결정자 및 의사결정자: 젠더통계에 기반하여 정책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
- 학계 전문가: 젠더통계를 활용해 연구를 심화하고자 하는 교수 및 연구자
- 시민단체: 젠더통계를 활용해 옹호 활동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단체
- 언론인: 젠더통계를 기사에 활용하고 더 정확하고 포괄적 내용을 보도하려는 언론인
- 일반 대중: 젠더통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활용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구성과 내용

**A6.** 젠더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표준, 모범 사례, 각종 자료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고 총 12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주제별로 상세한 교재 및 훈련 가이드를 통해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또한 각 모듈에서는 학습대상, 교육시간, 학습목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12개 모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	내용
모듈 1(30~60분)	젠더통계 개념과 SDGs 모니터링에의 활용 - 성별(sex)과 젠더(gender)의 개념 소개, 젠더통계가 다학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 특히 SDGs 모니터링과 관련된 젠더 지표 소개
모듈 2(30~60분)	젠더통계 문해력과 저지르기 쉬운 실수 - 데이터와 통계의 기본 개념을 소개, 젠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와 통계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요 원칙 설명
모듈 3(1~2시간)	SDGs 모니터링을 위한 젠더통계 계산 - SDGs 체계에 포함된 일부 젠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세부 내용을 제공
모듈 4(30~60분)	사용자-생산자 대화 - 젠더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요구와 데이터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사용자-생산자 간 대화 진행에 대한 지침 제공
모듈 5(30~60분)	젠더 데이터 수집과 추정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 설명, 데이터 수집 도구와 방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젠더 편향 소개, 데이터 추정 및 분석 과정에 젠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우수 사례 제시
모듈 6(2~3시간)	젠더 관점을 활용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회귀분석과 같은 고급 통계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젠더 통계를 이해
모듈 7(30~60분)	다수준 세분화 분석 -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SDGs 핵심원칙인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Living No One Behind)' 개념 탐구,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탐색
모듈 8	SDMX를 사용한 어려닝
모듈 9(1~1.5시간)	올바른 젠더 데이터 찾기와 기본 분석 수행 - 양질의 데이터와 관련된 차원과 표준 설명, 젠더 데이터의 주요 출처와 공식 및 비공식, 거시 및 미시 자료의 탐색, 데이터의 정확한 해석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젠더 데이터 분석의 요소와 원칙 소개

모듈 10(2~3시간)	젠더 데이터 의사소통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설명,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팁과 모범 사례 제시
모듈 11(1~2시간)	정책 수립을 위한 젠더 데이터 활용 - 정책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방법 소개, 정책 결정에서 젠더 통계의 중요성 강조
모듈 12(1~2시간)	비공식 데이터 출처 - 빅데이터의 특성과 젠더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 원천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부록 1	커리큘럼을 국가 훈련 과정에 통합하기
부록 2	젠더 분석을 위한 서베이 데이터와 공간정보 데이터 연계

각 모듈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자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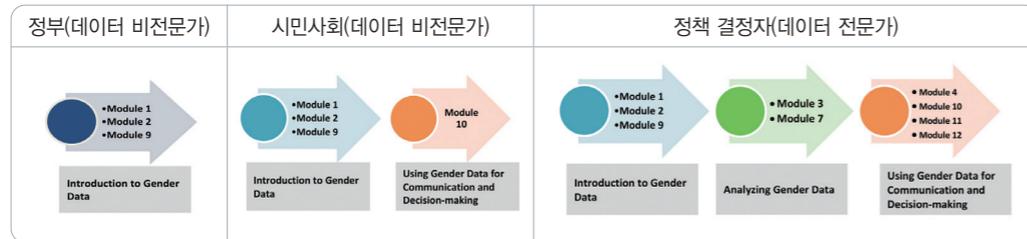
- 강의자료원: 각 모듈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상독자, 강의소요시간, 학습목표에 대한 기본정보로 시작하여 교육에서 다룰 핵심내용으로 이어진다.
- 슬라이드자료: 모듈별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슬라이드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참고자료 목록: 강사와 학습자 모두를 위한 부가적인 정보로 관련 참고자료 목록이 제공된다.
- 연습문제: 각 모듈에는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포함된다. 연습문제는 주요 개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사는 자신의 교육환경에 맞는 추가 연습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평가: 각 모듈에는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사전사후평가가 추가로 제공된다. 연습문제와 달리 학습을 좀 더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의 활용법

**A7.** 이 커리큘럼은 훈련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단계별 가이드로 설계되었다. 또한 젠더통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거나 젠더 관련 주제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 맞춤형 학습 트랙: 배경과 요구가 다양한 대상그룹을 목표로 하며, 모듈형 설계를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강사는 대상의 유형과 배경에 따라 모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맞춤형 학습 트랙을 설계할 수 있다.



- 이 커리큘럼은 개인적, 교육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한다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자료는 출처란에 “From the Gender statistics training curriculum developed by UN Women and SIAP, under the guidance of the Subgroup on Gender Statistics Training”이라고 표시하고 관련 링크(<https://data.unwomen.org/resources/gender-statistics-training-curriculum>)를 병기한다. 한편 이번 칼럼은 커리큘럼 소개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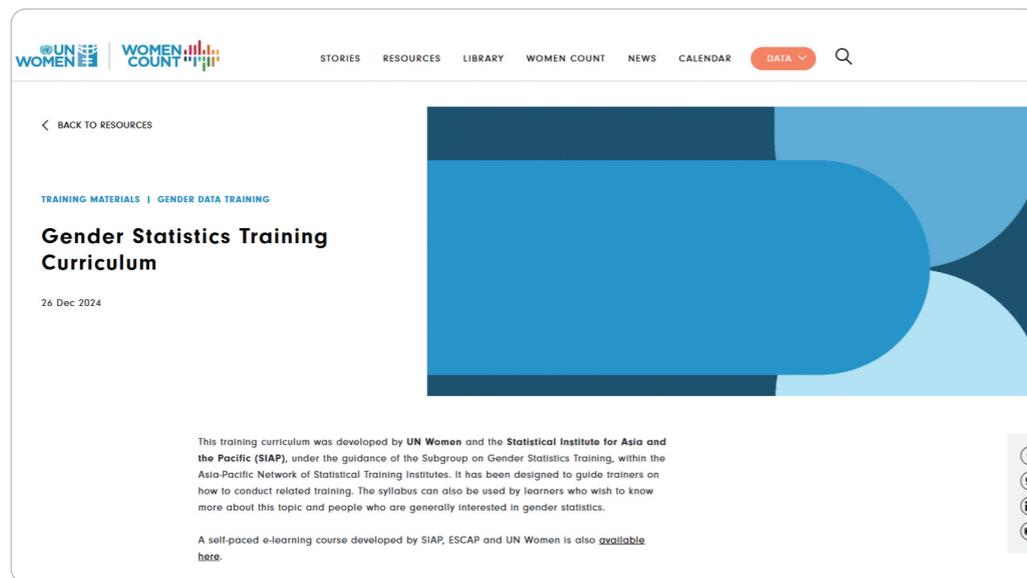


그림 젠더통계 훈련 커리큘럼이 수록된 UN Women 사이트

## Q8 한국의 젠더통계 현황

A8. 이 커리큘럼 모듈 11에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사례연구 결과가 소개되었다. 성별 통계지표에 근거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한 사례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젠더통계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정류장부터 거주지역까지의 도보환경을 개선한 경기도의 사례가 나와 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통계 포털(<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예, 제주도 <https://gs.jewfri.kr/>)에서도 관련 자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커리큘럼 모듈 11 한국 모범 사례 수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포털
<p>5. Annex: Case studies</p> <p>To advance gender equality, the Republic of Korea systematically evaluates the impact of gender disparities i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hrough a process known as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government conducts these assessments and publishes best practices annually. In the subsequent section, we will present two case studies demonstrating how gender data has been used to improve policy. The first case illustrates the utilization of gender data in policy making, while the second case focuses on enhancing statistical data for gender mainstreaming efforts. Sex-disaggregated statistics serve as the foundatio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policy development, and the continuous refinement of these statistics is an ongoing circular process.</p> <p><i>Case 1: Safe Village Road and Bus Stop Improvement Project (2017,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i></p> <p><b>Statistical evidence:</b> There are two statistics that were used to inform this project. One is the Fear of Crime (SDG 16.1.4: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feel safe walking alone around the area they live after dark), and the second one is the proportion of people relying in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s National Life Safety Survey, more women (34.3%) than men (9.8%) were afraid of crime as of 2015, and more women (43.4%) than men (21.6%) wer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Gyeonggi Gender Statistics as of 2015.</p>	